

3회 연속 톱10 “가자 소치로!”

sochi.2014 D-14

한국 선수단 결단식 6개 종목 64명 참가

겨울올림픽에서 3회 연속 세계 10위권 진입을 목표로 한 ‘태극전사’들이 출전 채비를 마치고 결전 의지를 다졌다.

대한체육회는 23일 서울 노원구 공릉동 태릉선수촌 챔피언하우스에서 다음달 러시아 소치에서 개막하는 2014 동계올림픽에 출전할 우리나라 선수단의 결단식을 열었다.

우리나라는 이번 소치 올림픽에 선수 64명과 임원 49명 등 총 113명이 참가한다. 겨울올림픽 사상 출전 선수 수도 가장 많고 전체 선수단도 최대 규모다.

우리나라 선수들은 아이스하키를 제외하고 스키, 빙상, 바이애슬론, 봄슬레이, 컬링, 루지 등 6개 종목에 출전해 기량을 겨룬다.

결단식에는 쇼트트랙, 컬링, 루지 등 국외 전지훈련중인 선수들을 제외하고 스피드·피겨 스케이팅, 알파인 스키, 스키점프, 봄슬레이, 스켈레톤 종목 등의 선수와 본부 임원을 포함한 약 80명의 선수단이 참석했다.

정홍원 국무총리를 비롯해 유진룡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김정행 대한체육회장과 경기단체장 등도 자리 함께 해 소치 올림픽에 태극마크를 달고 나설 선수단을 격려하고 선전을

당부했다. 행사는 국가대표 휘장 수여, 선수·부모 목도리 수여, 단기 수여 등의 순으로 진행됐다.

체육회는 국가대표로서의 자긍심을 고취하고자 처음으로 휘장을 만들어 이번 올림픽에 참가하는 모든 선수에게 주기도 했다.

휘장은 소치올림픽 마스코트 중 하나인 ‘눈꽃(snowflake)과 우리나라의 6개 참가 종목을 형상화해 제작했다.

휘장 수여식에서는 김정행 체육회장이 선수단을 대표해 김재열 선수단장과 김호준(스노보드), 모태범(스피드스케이팅), 원윤종(봄슬레이), 이인복(바이애슬론) 등에게 직접 휘장을 전달했다.

또 선수와 부모가 올림픽에 선전을 기원하는 마음을 서로에게 전하는 목도리 수여식도 올림픽 결단식에서는 처음으로 진행됐다.

문지희(바이애슬론), 최재우(프리스타일 스キー), 빙상(스피드) 김태운(스피드스케이팅), 서영우(봄슬레이)와 이들의 부모가 참석해 서로 목도리를 걸어줬다.

우리나라 선수단 본단은 2월 1일 전세기편으로 출국해 다음달 7일(이하 현지시간) 개막하는 소치 올림픽에 참가한다.

연합뉴스

광주시체육회 이사회·정기 대의원총회

광주시체육회는 23일 광주시청 종회의실에서 제115차 이사회 및 2014년 정기 대의원총회를 개최했다.

이날 이사회는 2013년도 회계·정기감사 결과와 제95회 전국 동계체전 참가 계획, 종합 체육회관 건립계획, 시청사 문화광장내 애완스케이트장 운영 상황, 체육인재 장학기금 조성 결과 등 총 5건을 보고했다.

또한 당구연맹을 정가맹 단체로, 카누연맹을 준가맹 단체로 승인하는 등 총 6건의 인장을 의결했다.

강운대 체육회장은 회의에 앞서 2014년 체육회 지도자로 선정된 28명에게 체육지도자 임명장을 수여하고,

체육인재 장학생 10명에게 장학금을 전달했다.

광주시체육회는 지난 2011년부터 체육인재 장학기금을 조성하기 시작해 3년만에 목표액 10억원을 달성했다. 앞으로 당해연도 이자분으로 장학금을 지속적으로 지원할 계획이다.

광주시체육회 김홍식 상임 부회장은 “올해 시민과 함께하는 ‘스포츠 러빙 시티’(Sports Loving City)를 만들기 위해 우수선수 육성 및 청년 디자인 강화를 비롯해 학교체육 활성화를 위한 청소년 스포츠클럽 운영 등에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송기동기자 song@kwangju.co.kr

체육인재 장학생 10명에게 장학금을 전달했다.

광주시체육회는 지난 2011년부터 체육인재 장학기금을 조성하기 시작해 3년만에 목표액 10억원을 달성했다. 앞으로 당해연도 이자분으로 장학금을 지속적으로 지원할 계획이다.

광주시체육회 김홍식 상임 부회장은 “올해 시민과 함께하는 ‘스포츠 러빙 시티’(Sports Loving City)를 만들기 위해 우수선수 육성 및 청년 디자인 강화를 비롯해 학교체육 활성화를 위한 청소년 스포츠클럽 운영 등에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송기동기자 song@kwangju.co.kr

체육인재 장학생 10명에게 장학금을 전달했다.

광주시체육회는 지난 2011년부터 체육인재 장학기금을 조성하기 시작해 3년만에 목표액 10억원을 달성했다. 앞으로 당해연도 이자분으로 장학금을 지속적으로 지원할 계획이다.

광주시체육회 김홍식 상임 부회장은 “올해 시민과 함께하는 ‘스포츠 러빙 시티’(Sports Loving City)를 만들기 위해 우수선수 육성 및 청년 디자인 강화를 비롯해 학교체육 활성화를 위한 청소년 스포츠클럽 운영 등에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송기동기자 song@kwangju.co.kr

체육인재 장학생 10명에게 장학금을 전달했다.

광주시체육회는 지난 2011년부터 체육인재 장학기금을 조성하기 시작해 3년만에 목표액 10억원을 달성했다. 앞으로 당해연도 이자분으로 장학금을 지속적으로 지원할 계획이다.

광주시체육회 김홍식 상임 부회장은 “올해 시민과 함께하는 ‘스포츠 러빙 시티’(Sports Loving City)를 만들기 위해 우수선수 육성 및 청년 디자인 강화를 비롯해 학교체육 활성화를 위한 청소년 스포츠클럽 운영 등에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송기동기자 song@kwangju.co.kr

체육인재 장학생 10명에게 장학금을 전달했다.

광주시체육회는 지난 2011년부터 체육인재 장학기금을 조성하기 시작해 3년만에 목표액 10억원을 달성했다. 앞으로 당해연도 이자분으로 장학금을 지속적으로 지원할 계획이다.

광주시체육회 김홍식 상임 부회장은 “올해 시민과 함께하는 ‘스포츠 러빙 시티’(Sports Loving City)를 만들기 위해 우수선수 육성 및 청년 디자인 강화를 비롯해 학교체육 활성화를 위한 청소년 스포츠클럽 운영 등에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송기동기자 song@kwangju.co.kr

체육인재 장학생 10명에게 장학금을 전달했다.

광주시체육회는 지난 2011년부터 체육인재 장학기금을 조성하기 시작해 3년만에 목표액 10억원을 달성했다. 앞으로 당해연도 이자분으로 장학금을 지속적으로 지원할 계획이다.

광주시체육회 김홍식 상임 부회장은 “올해 시민과 함께하는 ‘스포츠 러빙 시티’(Sports Loving City)를 만들기 위해 우수선수 육성 및 청년 디자인 강화를 비롯해 학교체육 활성화를 위한 청소년 스포츠클럽 운영 등에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송기동기자 song@kwangju.co.kr

체육인재 장학생 10명에게 장학금을 전달했다.

광주시체육회는 지난 2011년부터 체육인재 장학기금을 조성하기 시작해 3년만에 목표액 10억원을 달성했다. 앞으로 당해연도 이자분으로 장학금을 지속적으로 지원할 계획이다.

광주시체육회 김홍식 상임 부회장은 “올해 시민과 함께하는 ‘스포츠 러빙 시티’(Sports Loving City)를 만들기 위해 우수선수 육성 및 청년 디자인 강화를 비롯해 학교체육 활성화를 위한 청소년 스포츠클럽 운영 등에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송기동기자 song@kwangju.co.kr

체육인재 장학생 10명에게 장학금을 전달했다.

광주시체육회는 지난 2011년부터 체육인재 장학기금을 조성하기 시작해 3년만에 목표액 10억원을 달성했다. 앞으로 당해연도 이자분으로 장학금을 지속적으로 지원할 계획이다.

광주시체육회 김홍식 상임 부회장은 “올해 시민과 함께하는 ‘스포츠 러빙 시티’(Sports Loving City)를 만들기 위해 우수선수 육성 및 청년 디자인 강화를 비롯해 학교체육 활성화를 위한 청소년 스포츠클럽 운영 등에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송기동기자 song@kwangju.co.kr

체육인재 장학생 10명에게 장학금을 전달했다.

광주시체육회는 지난 2011년부터 체육인재 장학기금을 조성하기 시작해 3년만에 목표액 10억원을 달성했다. 앞으로 당해연도 이자분으로 장학금을 지속적으로 지원할 계획이다.

광주시체육회 김홍식 상임 부회장은 “올해 시민과 함께하는 ‘스포츠 러빙 시티’(Sports Loving City)를 만들기 위해 우수선수 육성 및 청년 디자인 강화를 비롯해 학교체육 활성화를 위한 청소년 스포츠클럽 운영 등에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송기동기자 song@kwangju.co.kr

체육인재 장학생 10명에게 장학금을 전달했다.

광주시체육회는 지난 2011년부터 체육인재 장학기금을 조성하기 시작해 3년만에 목표액 10억원을 달성했다. 앞으로 당해연도 이자분으로 장학금을 지속적으로 지원할 계획이다.

광주시체육회 김홍식 상임 부회장은 “올해 시민과 함께하는 ‘스포츠 러빙 시티’(Sports Loving City)를 만들기 위해 우수선수 육성 및 청년 디자인 강화를 비롯해 학교체육 활성화를 위한 청소년 스포츠클럽 운영 등에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송기동기자 song@kwangju.co.kr

체육인재 장학생 10명에게 장학금을 전달했다.

광주시체육회는 지난 2011년부터 체육인재 장학기금을 조성하기 시작해 3년만에 목표액 10억원을 달성했다. 앞으로 당해연도 이자분으로 장학금을 지속적으로 지원할 계획이다.

광주시체육회 김홍식 상임 부회장은 “올해 시민과 함께하는 ‘스포츠 러빙 시티’(Sports Loving City)를 만들기 위해 우수선수 육성 및 청년 디자인 강화를 비롯해 학교체육 활성화를 위한 청소년 스포츠클럽 운영 등에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송기동기자 song@kwangju.co.kr

체육인재 장학생 10명에게 장학금을 전달했다.

광주시체육회는 지난 2011년부터 체육인재 장학기금을 조성하기 시작해 3년만에 목표액 10억원을 달성했다. 앞으로 당해연도 이자분으로 장학금을 지속적으로 지원할 계획이다.

광주시체육회 김홍식 상임 부회장은 “올해 시민과 함께하는 ‘스포츠 러빙 시티’(Sports Loving City)를 만들기 위해 우수선수 육성 및 청년 디자인 강화를 비롯해 학교체육 활성화를 위한 청소년 스포츠클럽 운영 등에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송기동기자 song@kwangju.co.kr

체육인재 장학생 10명에게 장학금을 전달했다.

광주시체육회는 지난 2011년부터 체육인재 장학기금을 조성하기 시작해 3년만에 목표액 10억원을 달성했다. 앞으로 당해연도 이자분으로 장학금을 지속적으로 지원할 계획이다.

광주시체육회 김홍식 상임 부회장은 “올해 시민과 함께하는 ‘스포츠 러빙 시티’(Sports Loving City)를 만들기 위해 우수선수 육성 및 청년 디자인 강화를 비롯해 학교체육 활성화를 위한 청소년 스포츠클럽 운영 등에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송기동기자 song@kwangju.co.kr

체육인재 장학생 10명에게 장학금을 전달했다.

광주시체육회는 지난 2011년부터 체육인재 장학기금을 조성하기 시작해 3년만에 목표액 10억원을 달성했다. 앞으로 당해연도 이자분으로 장학금을 지속적으로 지원할 계획이다.

광주시체육회 김홍식 상임 부회장은 “올해 시민과 함께하는 ‘스포츠 러빙 시티’(Sports Loving City)를 만들기 위해 우수선수 육성 및 청년 디자인 강화를 비롯해 학교체육 활성화를 위한 청소년 스포츠클럽 운영 등에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송기동기자 song@kwangju.co.kr

체육인재 장학생 10명에게 장학금을 전달했다.

광주시체육회는 지난 2011년부터 체육인재 장학기금을 조성하기 시작해 3년만에 목표액 10억원을 달성했다. 앞으로 당해연도 이자분으로 장학금을 지속적으로 지원할 계획이다.

광주시체육회 김홍식 상임 부회장은 “올해 시민과 함께하는 ‘스포츠 러빙 시티’(Sports Loving City)를 만들기 위해 우수선수 육성 및 청년 디자인 강화를 비롯해 학교체육 활성화를 위한 청소년 스포츠클럽 운영 등에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송기동기자 song@kwangju.co.kr

체육인재 장학생 10명에게 장학금을 전달했다.

광주시체육회는 지난 2011년부터 체육인재 장학기금을 조성하기 시작해 3년만에 목표액 10억원을 달성했다. 앞으로 당해연도 이자분으로 장학금을 지속적으로 지원할 계획이다.

광주시체육회 김홍식 상임 부회장은 “올해 시민과 함께하는 ‘스포츠 러빙 시티’(Sports Loving City)를 만들기 위해 우수선수 육성 및 청년 디자인 강화를 비롯해 학교체육 활성화를 위한 청소년 스포츠클럽 운영 등에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송기동기자 song@kwangju.co.kr

체육인재 장학생 10명에게 장학금을 전달했다.

광주시체육회는 지난 2011년부터 체육인재 장학기금을 조성하기 시작해 3년만에 목표액 10억원을 달성했다. 앞으로 당해연도 이자분으로 장학금을 지속적으로 지원할 계획이다.

광주시체육회 김홍식 상임 부회장은 “올해 시민과 함께하는 ‘스포츠 러빙 시티’(Sports Loving City)를 만들기 위해 우수선수 육성 및 청년 디자인 강화를 비롯해 학교체육 활성화를 위한 청소년 스포츠클럽 운영 등에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송기동기자 song@kwangju.co.kr

체육인재 장학생 10명에게 장학금을 전달했다.

광주시체육회는 지난 2011년부터 체육인재 장학기금을 조성하기 시작해 3년만에 목표액 10억원을 달